

인식조사를 통해 본 가짜뉴스 문제의 보집과 대응 방안:

구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윤성이 (경희대)

목차

I. 서론

II. 가짜뉴스에 관한 기존 연구

III.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현황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V. 결론

I. 서론

- 가짜뉴스는 탈진실(post-truth) 시대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와 연결
 - 탈진실은 “여론 형성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이 다른 것보다 영향력이 덜한 상황과 관련된 것” (옥스포드 사전)
 - 탈진실의 시대에서는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의 공리에 따른 상대주의가 지배하면서 불안과 위기가 폭증(김광기 2020, 232)
 - 라클라우(Laclau 2005)의 “부유하는 기표” (floating signifier) 개념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설명
 - 부유하는 기표는 헤게모니 투쟁에서 승리한 집단의 논리, 진실
 - 적대적 진영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에게 친숙한 대안적 사실을 구축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

I. 서론

- 가짜뉴스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전환시대와 밀접한 관련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폭과 깊이는 생산양식과 사회 운영 체계 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심오함
 -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과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가치관이 통째로 흔들림
 -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전환시대를 살고 있음
 - 전환시대에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의 틈바구니에서 가짜뉴스가 생성, 확산
 - 가짜뉴스는 헤게모니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모든 현상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
 -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과 선택 역시 자율적일 수 없으며 정치사회 구조와 미디어 환경에 영향을 받음
 - 정치 양극화 구조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인

II. 가짜뉴스에 관한 기존 연구

- 대안적 사실 (alternative fact), 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
 - 믿고 싶은 주장과 가치가 보편적 사실과 차이가 있을 때, 대안적 사실을 찾고 가짜뉴스를 수용(Strong 2017)
 - 확증편향이란 논리와 이성애 근거한 판단없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별적으로 습득하면서 기존의 신념과 믿음을 강화하는 편향적 정보 처리 과정
 - 기존 언론의 보도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때 자신들의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
 - 정보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확성보다는 정보의 유용성이 더 중요한 기준 (Guess et al. 2019, 3)
- 무지이론(ignorance theory)과 양극화 이론(polarization theory)
 - 무지 이론이 정확성에 초점, 양극화 이론은 목표 지향적 이론
 - 무지 이론은 연령, 인지적 성찰(cognitive reflection), 정치지식,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변인 중심으로 개인의 가짜뉴스 공유 정도를 분석

II. 가짜뉴스에 관한 기존 연구

- 무지 이론(ignoranc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하지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인지적 성찰(cognitive reflection)이나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거짓을 공유하게 된다고 가정
- 페니콕과 랜드(Pennycook & Rand 2019)의 미국 사례 연구에 따르면, 인지 성찰 테스트(cognitive reflection test)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뉴스 기사 헤드라인이 참인지 거짓인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게스 등의(Guess et. als. 2019) 연구 역시 노인들이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젊은 세대보다 디지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 설명
- 양극화 이론은 가짜뉴스 공유의 중요한 동인인 당파성에 초점
- 미국 사례, 가짜뉴스 공유는 양극화되는 정치 상황과 깊은 관련
-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짜뉴스 해결하기 어려움(Osmundsen et. als. 2021)

II. 가짜뉴스에 관한 기존 연구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가짜뉴스 공급과 소비 모두 트럼프를 지지하는 내용이 더 많았는데, 이는 정보의 정치적 유용성을 더 중시하는 목적 지향적 정보수용 태도 때문(Guess et al. 2019)
-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가짜뉴스 공유하는 가장 큰 동기(Amira et al. 2019)
-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위협이 감지되면 이를 반격하고 반대 집단의 신뢰도를 훼손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공유 (Amira et al. 2019)
- 개인이 어떤 뉴스 기사를 공유할 것인지 결정할 때 내부 집단에 대한 지지보다는 상대 정당에 해를 끼치는 기사를 더 우선적으로 선택(Brady et al. 2017)
- 당파성이 강한 사람은 외부 정당에 해를 끼치는 것보다 내부 정당을 돕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연구도 있음(Lelkes & Westwood 2017)

III.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현황

<표 1>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

	전혀 동의 않음	대체로 동의 않음	보통임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가짜뉴스 심각성	11(.9)	45(3.6)	178(14.3)	541(43.4)	472(37.9)
속을 가능성 높다	32(2.6%)	135(10.8%)	322(25.8)	566(45.4)	192(15.4)
규제해서는 안됨	305(24.5)	426(34.2)	289(23.2)	179(14.4)	48(3.8)

<표 2> 주체 별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책임: 4점(다소 많다) + 5점(매우 많다)

보수 유튜브	진보 유튜브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보수 언론	진보 언론
841(67.5%)	807(64.7%)	657(52.7%)	681(54.6%)	700(56.1%)	689(55.3%)

<표 3>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인식

	전혀 동의 않음	대체로 동의 않음	보통임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소셜미디어가 문제 악화	17(1.4)	78(6.3)	356(28.5)	642(51.5)	154(12.3)
거짓이 더 빨리 확산	7(.6)	50(4.0)	264(21.2)	530(42.5)	396(31.8)
참과 거짓 구분 가능	75(6.0)	394(31.6)	501(40.2)	227(18.2)	50(4.0)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1. 행위자 요인

가짜뉴스 경험 차이

<표 4> 성별 가짜뉴스 경험 차이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df	유의확률	에타자승
남자	628	.48	.500	7.191	1, 1245	.007	.006
여자	617	.41	.492				

<표 5> 정치관심도와 가짜뉴스 경험 차이 (경험 없다 0, 있다 1)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있음	매우 있음	전체
평균	.18	.30	.42	.53	.62	.45
표준 편차	.387	.458	.494	.500	.487	.497
N	34	100	551	302	161	1247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거짓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공	
14,107	4	3.527	14.894	.000	.046	

<표 6> 정치지식과 가짜뉴스 경험 차이 (경험 없다 0, 있다 1)

	0개 정답	1개 정답	2개 정답	3개 정답	4개 정답
평균	.33	.38	.44	.42	.63
표준 편차	.474	.486	.497	.495	.483
N	40	254	200	257	100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거짓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공
8,659	4	2.165	8.976	.000	.028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1. 행위자 요인

가짜뉴스 수용 차이

※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

1-가. 한국전력의 적자가 대단히 크게 발생한 것은 탈원전 정책 탓이다.

1-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개표 조작 등 선거 부정이 있었다.

1-다. 북한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해킹으로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1-라. ‘검수완박(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지구대 인력이 부족해졌다.

※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

2-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주변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졌다.

2-나. 현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에 대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

2-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2-라.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만 ‘봐주기 수사’를 해서 발생한 것이다.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1. 행위자 요인

가짜뉴스 수용 차이

- 가짜뉴스의 수용 정도는 상당히 높음
- ✓ 진보성향의 가짜뉴스에 대한 수용 정도가 보수 성향에 비해 더 높음
- ✓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발생”은 68.1%가 사실로 인식
- ✓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 59.6%가 사실로 인식
- ✓ “2020년 구구회의원 선거 때 개표조작 등 부정이 있었다” 33.9%만이 사실
- ✓ “북한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해킹으로 침투” 역시 거짓이라는 인식이 더 많음

<표 7> 가짜뉴스 수용 정도(%)

가짜뉴스	1-가	1-나	1-다	1-라	2-가	2-나	2-다	2-라
거짓	42.7	66.1	54.0	38.1	31.9	40.3	47.5	44.9
사실	57.3	33.9	46.0	61.9	68.1	59.6	52.5	55.1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1. 행위자 요인

행위자 요인 선형회귀 분석

- 계층, 학력, 이념, 정치지식, 효능감 2 등이 유의미
- 계층과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일수록, 정치지식이 낮을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믿을 가능성이 높음

<표 8>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성별	.251	.049	1.787	.074
나이	-.018	-.012	-.398	.691
계층	-.228	-.096	-3.425	.001
학력	-.141	-.064	-2.227	.026
이념	.377	.293	10.694	.000
정치관심도	.138	.053	1.828	.068
정치지식	-.163	-.069	10.694	.000
효능감 1	-.095	-.043	-1.379	.168
효능감 2	.215	.082	2.680	.007

효능감 1: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나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효능감 2: “공직자들은 일반 국민의 생각을 잘 듣고 하지 않는가?”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1. 행위자 요인

행위자 요인 선형회귀 분석

- 나이, 이념, 효능감 2 만이 유의미
- 나이가 어리고 진보 성향일수록,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각을 듣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믿을 가능성이 높음

<표 9> 진보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성별	.306	.046	1.887	.059
나이	-.525	-.261	-10.101	.000
계층	-.017	-.006	-.225	.822
학력	.063	.022	.865	.387
이념	-.626	-.374	-15.424	.000
정치관심도	.055	.016	.631	.528
정치지식	-.110	-.036	-1.364	.173
효능감 1	-.134	-.046	-1.784	.092
효능감 2	-.653	-.191	-7.074	.000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2. 구조 요인

- 정치 양극화 구조가 가짜뉴스 수용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줌
- 전체 응답자 1,247명 가운데 보수 성향 가짜뉴스 4개 모두 사실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209명
- 진보 성향 가짜뉴스를 모두 사실로 수용한 응답자는 448명
- 보수 가짜뉴스 수용자의 윤석열 호오도는 4.48인 반면 이재명은 2.80
- 진보 가짜뉴스 수용자의 경우 윤석열 호오도는 1.67이고 이재명은 5.27
-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역시 보수 가짜뉴스 수용자와 진보 가짜뉴스 수용자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임

<표 10> 가짜뉴스 수용 집단 특성

	윤석열 호오도	이재명 호오도	윤석열 국정운영	주관적 이념
보수 가짜 수용(209명)	4.48	2.80	4.92	5.56
진보 가짜 수용(448명)	1.67	5.27	1.60	4.28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2. 구조 요인

구조 요인 선형회귀 분석

- 윤석열과 이재명 호오도, 영호남 갈등과 여야 갈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
- 윤석열에 대해 호감을 가질수록, 이재명을 싫어할수록, 영호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여야 갈등의 인식이 약할수록 가짜뉴스 수용 확률이 높음

<표 11>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윤석열 호오도	.245	.298	10.376	.000
이재명 호오도	-.207	-.244	-8.500	.000
온라인 유유상종	.055	.014	.567	.571
영호남 갈등	.330	.121	4.270	.000
여야 갈등	-.374	-.124	-2.831	.005
이념 갈등	.037	.012	.280	.780

수정된 $R^2 = .231$, $F(6, 1240) = 63.412$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2. 구조 요인

구조 요인 선형회귀 분석

- 윤석열과 이재명 호오도, 영호남 갈등과 여야 갈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
- 윤석열에 대해 호감을 가질수록, 이재명을 싫어할수록, 영호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여야 갈등의 인식이 약할수록 가짜뉴스 수용 확률이 높음

<표 12> 진보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윤석열 호오도	-.561	-.526	-24.023	.000
이재명 호오도	.371	.337	15.376	.000
온라인 유유상종	-.002	.000	-.026	.980
영호남 갈등	-.016	-.004	-2.07	.836
여야 갈등	-.409	-.104	-3.125	.002
이념 갈등	.467	.119	3.559	.000

수정된 $R^2 = .554$, $F(6, 1240) = 258.839$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3. 행위자요인과 구조요인 비교

-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 수용에 유의미한(95% 수준) 영향을 주는 변인은 나이, 계층, 정치관심도, 정치지식, 윤석열 호오도, 이재명 호오도, 영호남 갈등, 여야 갈등 등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윤석열 호오도($\beta=.303$)이었으며,
- 그 다음으로 이재명 호오도($\beta=-2.29$), 영호남 갈등($\beta=.108$), 여야 갈등($\beta=-.107$)
- 윤석열을 좋아할수록 그리고 이재명을 싫어할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사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 영남과 호남 그리고 야당과 야당의 관계가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행위자 변인 가운데 가짜뉴스 수용이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나이($\beta=-.084$)와 계층($\beta=-.083$)으로 나타남
-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이 속하는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보수 성향의 가짜뉴스를 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3. 행위자요인과 구조요인 비교

<표 13> 보수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성별	.213	.042	1.649	.099
나이	-.129	-.084	-2.993	.003
계층	-.196	-.083	-3.187	.001
학력	-.099	-.045	-1.698	.090
이념	.073	.057	1.931	.054
정치관심도	.158	.061	2.270	.023
정치지식	-.182	-.077	-2.822	.005
효능감 1	-.112	.064	-1.765	.078
효능감 2	-.001	.000	-.009	.993
윤석열 호오도	.248	.303	9.541	.000
이재명 호오도	-.194	-2.29	-7.653	.000
온라인 유유상종	.103	.027	1.070	.285
영호남 갈등	.295	.108	3.832	.000
여야 갈등	-3.22	-.107	-2.452	.014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3. 행위자요인과 구조요인 비교

- 진보 성향 가짜뉴스 역시 윤석열($\beta = -.445$)과 이재명($\beta = .324$)에 대한 호오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윤석열을 싫어할수록 그리고 이재명을 좋아할수록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
-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나이($\beta = -.158$)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인식($\beta = .116$)임
-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우리 사회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음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3. 행위자요인과 구조요인 비교

<표 14> 진보 성향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	β	t	p
성별	.379	.057	3.025	.003
나이	-.318	-.158	-7.590	.000
계층	-.061	-.020	-1.032	.302
학력	-.001	-.000	.019	.985
이념	-.074	-.044	-2.008	.045
정치관심도	-.008	-.002	-.121	.093
정치지식	-.100	-.032	-1.590	.112
효능감 1	-.118	-.041	-1.912	.056
효능감 2	-.200	-.059	-2.676	.008
윤석열 호오도	-4.75	-.445	-18.820	.000
이재명 호오도	.357	.324	14.526	.000
온라인 유유상종	-.009	-.002	-.094	.925
영호남 갈등	.022	.006	.300	.764
여야 갈등	-.269	-.068	-2.113	.035

IV.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

3. 행위자요인과 구조요인 비교

- 전체 변인 가운데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가짜뉴스 수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이와 윤석열 호오도, 이재명 호오도 그리고 여야 갈등에 대한 인식 4개 변인
- 이들 가운데 영향력 가장 높은 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 감정
-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국 정치의 특성으로 인물 정치
- 한국 정치 균열구조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이념, 세대 갈등과 여야 갈등 모두 대통령 혹은 진영의 지도자를 둘러싼 갈등 양상 보임
-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과 정치 갈등은 집단 간의 실제적 차이보다는 정치권에 의한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의 결과로 나타나는 측면이 강함
- 가짜뉴스 문제 역시 기존의 갈등 요인과 동일한 양상을 보임
- 가짜뉴스를 사실로 인식하고 확산하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호오도로 나타남

V. 결론

- 미국 등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치 양극화 구조가 가짜뉴스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됨
- 소셜미디어 확산과 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역시 가짜뉴스 확산을 촉진하는 악영향을 줌
- 다수가 가짜뉴스에 규제를 원하지만, 규제를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미국의 가짜뉴스 사례를 연구한 오스먼센 등은 정치적 양극화라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림
- 그렇지만 양극화 해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팩트 체크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안타까움도 포함(Osmundsen et. als. 2021, 1013).
- 가짜뉴스의 확산은 탈진실 시대라는 사회변동과 맥을 같이 함
-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의 시대에 거짓과 사실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음
- 사회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정보는 가짜뉴스만이 아님

V. 결론

- 사실이라 하더라도 편향된 뉴스는 가짜뉴스 만큼이나 사회를 분열, 위험에 빠트림
 - 사람들이 진짜 뉴스를 찾고 공유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경멸을 담은 정보로 가득하다면, 이는 가짜뉴스 만큼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내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강화, 외집단 공격에 유용한 대안적 진실(alternative facts)을 쉽게 정립하고, 이는 정치 양극화와 사회 분열로 이어짐
 -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시민교육 등 여러 방안을 실천 노력이 필요함
 - 무엇보다 가짜뉴스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유튜브, 정치인, 언론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어야 함
 -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그렇지만 해외사례와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가짜뉴스 문제의 궁극적 해답은 정치 양극화 해소에 있다는 것임